



영천 가정예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해요

찬양을 드려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요 (빌립보서 2장 5~9절)

♥ 말씀 읽기(쉬운성경)

- 5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 6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 7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 8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 9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빌립보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많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낮추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서로 싸우고 있던 빌립보교회에 사도 바울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가정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 가정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 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겸손, 낮아진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②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주셨나요?

기도 드려요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던 빌립보교회의 모습이 어찌면 우리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라는 말이 빌립보교회뿐만 아닌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도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도 나도 배우고 나의 삶에 실천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생활 실천

- ♥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짐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낮아져야겠다고 생각하나요?
아래에 써보고 가족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나(영천이)은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함으로 겸손하겠습니다. (예)

나()은 _____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나()은 _____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나()은 _____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나()은 _____으로 겸손하겠습니다.

- ♥ 우리 가정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어요

※ 가정예배 드리시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교회 홈페이지에 인증글을 올려주셔서 가정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요~

